

보도시점 (지 면) 8. 29.(목) 조간  
(인터넷) 8. 28.(수) 12:00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

-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도약
-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

### ['25년 중기부 5대 중점 투자방향]

- (혁신 생태계) 딥테크 중심 역동 경제, 민간 중심 벤처투자, 혁신 R&D
- (글로벌화)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과 K-글로벌 스타트업
- (지역·제조혁신)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과 제조 중소기업의 新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상권)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민간 주도 지역 상권 발전
- (지속가능 성장)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였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초하에 중기부는 ①혁신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화, ③지역·제조혁신, ④소상공인·상권 활력, ⑤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중기부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혁신 생태계

### ①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상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 \* 초격차스타트업 1000+ : ('24) 1,031억원 → ('25안) 1,310억원(+279억원)  
[✓ 신규 : 팹리스·AI 스타트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대기업 링크업 협업 지원]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 \*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 ('24) 111억원 → ('25안) 200억원(+89억원)  
[✓ 신규 :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 \* 창업 규제 및 관리시스템 : ('24) 52억원 → ('25안) 70억원(+18억원)  
[✓ 신규 : 스타트업 법률 지원]

## ②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시키며,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였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4) 4,540억원 → ('25안) 5,000억원(+460억원)

## ③ 혁신에 도전하는 R&D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 기술혁신 R&D : ('24) 4,232억원 → ('25안) 5,680억원(+1,448억원)

\* 창업성장 R&D : ('24) 5,317억원 → ('25안) 5,960억원(+643억원)

(✓ 신규 :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팁스 R&D)

## 2 글로벌화

### ①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의 新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

- \* 수출 바우처 : ('24) 1,119억원 → ('25안) 1,276억원(+157억원)  
[✓ 신규 :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24) 2,005억원 → ('25안) 3,825억원(+1,820억원)
- \* 수출지원센터 운영 : ('24) 27억원 → ('25안) 34억원(+7억원)  
[✓ 신규 :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

## ②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 \* 글로벌창업허브구축 : ('24) 15억원 → ('25안) 319억원(+304억원)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여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4) 430 → ('25안) 530억원(+100억원)

### 3 지역·제조혁신

#### 1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 지역특화산업육성 : ('24) 802억원 → ('25안) 851억원(+49억원)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 ('24) 558억원 → ('25안) 614억원(+56억원)
-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 ('25안) 신규, 216억원(순증)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 \* 글로벌혁신특구육성 : ('24) 79억원 → ('25안) 139억원(+60억원)
- \* 글로벌혁신특구 전용 R&D : ('24) 20억원 → ('25안) 154억원(+134억원)
- \* 창업중심대학 : ('24) 675억원 → ('25안) 775억원(+100억원)

#### 2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 \*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24) 2,191억원 → ('25안) 2,361억원(+170억원)
- \*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 ('24) 20억원 → ('25안) 60억원(+40억원)

#### 4 소상공인·상권

### 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린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 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하였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25안) 신규, 2,037억원(순증)

\* 소상공인지원 융자 : ('24) 3조 7,100억원 → ('25) 3조 7,700억원(+6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4) 1,254억원 → ('25) 2,109억원(+855억원)

[※ 보증규모(잔액, 조원) : ('22) 46.2 → ('23) 44.3 → ('24목표) 44.7 → ('25목표) 43.3]

### ②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 희망리턴패키지 : ('24) 1,513억원 → ('25안) 2,450억원(+937억원)

[※ 폐업 개인 사업자 수(만명) : ('20) 82.8 → ('21) 81.9 → ('22) 80.0 → ('23) 91.1]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24) 524억원 → ('25안) 834억원(+310억원)
- \*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25안) 신규, 150억원(순증)

### ③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 \* 지역 상권기획 및 역량 강화 : ('24) 17억원 → ('25안) 44억원(+27억원)  
[✓ 신규 : 상권발전기금]
- \* 온누리상품권 발행 : ('24) 3,513억원 → ('25안) 3,907억원(+394억원)

## ⑤ 지속가능한 성장

### 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였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 \* 사업전환촉진 : ('24) 73억원 → ('25안) 372억원(+299억원)  
[✓ 신규 : 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 \* 사업전환자금 : ('24) 3,125억원 → ('25안) 3,500억원(+375억원)
- \* 구조개선촉진 : ('24) 23억원 → ('25안) 32억원(+9억원)
- \* 구조개선자금 : ('24) 1,193억원 → ('25안) 2,001억원(+808억원)

## ②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하였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하였다.

- \* 동반성장문화조성 : ('24) 56억원 → ('25안) 88억원(+32억원)  
[✓ 신규 :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융자 : ('24) 1,000억원 → ('25안) 1,400억원(+400억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였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재정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세훈	(044-204-7340)
		담당자	사무관	신규호	(044-204-7321)
			주무관	손임배	(044-204-7330)
			주무관	서윤주	(044-204-7327)

**참고 1**

**2025년 중기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본예산 (A)	'25년 정부안	전년 대비(B-A)	
		최 종(B)	증 감	증감률
◆ 총지출	149,497	152,920	+3,423	+2.3
○ 예산	35,004	36,772	+1,768	+5.1
- 일반회계	30,342	32,267	+1,925	+6.3
- 소특회계	731	357	△374	△51.2
- 지특회계	3,931	4,148	+217	+5.5
○ 기금	114,493	116,148	+1,655	+1.4
- 중진기금	63,397	62,319	△1,078	△1.7
- 소진기금	51,096	53,829	+2,733	+5.3

**참고 2**

**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사업명)	'24년 본예산 (A)	'25년 정부안 (B)	전년 대비(B-A)	
			증감	증감률
<b>계</b>	<b>72,595</b>	<b>85,844</b>	<b>+13,276</b>	<b>+18.3</b>
<b>① 혁신 생태계 조성</b>	<b>15,283</b>	<b>18,220</b>	<b>+2,937</b>	<b>+19.2</b>
초격차 스타트업 1000+	1,031	1,310	+279	+27.1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111	200	+89	+80.2
창업규제 및 관리시스템	52	70	+18	+34.6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540	5,000	+460	+10.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232	5,680	+1,448	+34.2
창업성장기술개발(R&D)	5,317	5,960	+643	+12.1
<b>② 글로벌화</b>	<b>3,596</b>	<b>5,984</b>	<b>+2,388</b>	<b>+66.4</b>
수출 바우처	1,119	1,276	+157	+14.0
수출지원센터 운영	27	34	+7	+25.9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2,005	3,825	+1,820	+90.8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15	319	+304	+2026.7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430	530	+100	+23.3
<b>③ 지역·제조혁신</b>	<b>4,325</b>	<b>5,016</b>	<b>+691</b>	<b>+16.0</b>
지역특화산업육성	802	851	+49	+6.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558	614	+56	+10.0
글로벌혁신특구육성	79	139	+60	+75.9
창업중심대학	675	775	+100	+14.8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216	순증	순증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91	2,361	+170	+7.8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20	60	+40	+200.0
<b>④ 소상공인·상권</b>	<b>43,921</b>	<b>49,231</b>	<b>+5,310</b>	<b>+12.1</b>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2,037	순증	순증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	37,700	+600	+1.6
지역신용보증재단채보증	1,254	2,109	+855	+68.2
희망리턴패키지	1,513	2,450	+937	+61.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	834	+310	+59.2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150	순증	순증
지역 상권기획 및 역량 강화	17	44	+27	+158.8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	3,907	+394	+11.2
<b>⑤ 지속 가능한 성장</b>	<b>5,470</b>	<b>7,393</b>	<b>+1,923</b>	<b>+35.2</b>
사업전환촉진	73	372	+299	+409.6
사업전환자금(융자)	3,125	3,500	+375	+12.0
구조개선촉진	23	32	+9	+39.1
구조개선자금(융자)	1,193	2,001	+808	+67.7
동반성장문화조성	56	88	+32	+57.1
동반성장네트워크론(융자)	1,000	1,400	+400	+40.0